

조(朝)·중(中)·일(日) 유서류(類書類)의 특성 비교 연구*

김형태**

|| 차례 ||

- I. 머리말
- II. 편목(篇目) 구성의 독자성 추구
- III. 표제어 관련 교화적 시각 반영
- IV. 화소(話素)를 통한 대중성 획득 모색
- V. 필자의 종합적 견해 표명
- VI. 맺음말

【 】

‘유서’는 내용을 사항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책으로, 일찍이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졌으며, 동북아시아 고유의 서적 편찬 형식을 지니고 있다.

본고는 이 가운데 『시명다식』과 『물명고』 등 우리나라의 ‘물명고’류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본초강목』과 일본의 『왜한삼재도회』 등과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조·중·일 유서류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편목(篇目) 구성의 독자성 추구, 표제어 관련 교화적 시각 반영, 화소를 통한 대중성 획득 모색, 필자의 종합적 견해 표명 등의 조건에 『본초강목』과 『왜한삼재도회』 및 ‘물명고’류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 우리나라 유서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유서류를 포함한 고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가교(架橋) 역할을 하는

* 이 연구결과물은 2014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삶의 현상이라는 데서 그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하고, 각각 교육 현장의 학습법과 서사성의 개발, 매체 활용의 측면에서 활용 방안을 찾아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서류의 가치와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제어 : 유서류, 동북아시아, 시명다식(詩名多識), 물명고, 편목 구성의 독자성, 인간적 적목, 설화적 화소와 대중성, 작가의 견해

I. 머리말

‘유서’는 내용을 사항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책으로, 일찍이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졌으며, 동양 고유의 서적 편찬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는 동양의 경(經)·사(史)·자(子)·집(集)의 전 영역 또는 일정 영역에 걸친 많은 서적부터 시문(詩文)·인물(人物)·전고(典故)·천문(天文)·지리(地理)·전장(典章)·제도(制度)·비금(飛禽)·주수(走獸)·초목(草木)·충어(蟲魚) 및 기타 많은 사물 등과 관련된 문장을 뽑아 유별(類別)·운별(韻別)·자별(字別) 등으로 분류하여 편찬함으로써 검색에 편리하도록 한 일종의 공구서(工具書)이다.¹⁾

『시경』을 예로 들더라도 중국에서는 그 내용에 포함된 생물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훈고학(訓詁學)을 중심으로 고조되어, 삼국시대 오(吳) 육기(陸璣, 261-303)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 2권(卷), 원(元)대 허겸(許謙)의 『시집전명물초(詩集傳名物鈔)』 8권, 명(明)대 풍부경(馮復京)의 『육가시명물소(六家詩名物疏)』 55권, 청(淸)대 서정(徐鼎)의 『모시명물도설(毛詩名物圖說)』 9권 등의 유서(類書)류가 편찬되었

1) 崔桓, 『한국 類書의 종합적 연구(I) -중국 유서의 전입 및 유행』, 『中國語文學』 第41輯, 영남중국어문학회, 2003, p.367.

고, 근자에는 『시경』의 물명 관련 텍스트를 포함한 저술들이 『시경요적집성(詩經要籍集成)』 42책(冊)으로 묶여 편찬되었다. 이들이 집대성된 문헌이 명대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1731년(향보(享保)16)에 에무라 조케이(江村如圭)가 『시경명물변해(詩經名物辨解)』 7권을 편찬하였고, 1778년(안영(安永)7)에 푸치 자이칸(湊在寬)이 육기의 저술을 일본어로 보충하고 그림을 곁들인 『육씨초목조수충어소도해(陸氏草木鳥獸蟲魚疏圖解)』 4권을 편찬하였으며, 1785년(천명(天明)5)에 오카 겐포우(岡元鳳)가 그림을 곁들여 『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7권을 편찬하였고, 1808년(문화(文化)5년)에 오노 란잔(小野蘭山)이 중국 서정의 저술에 일본식 이름과 그림을 덧붙여 『모시명물도설』 9권을 편찬하였다. 이들이 집대성된 문헌이 데라시마 료안(寺島良安)의 『왜한삼재도회(倭漢三才圖會)』이다.²⁾

우리나라의 유서 중 ‘물명고(物名考)’류에 속하는 저술들이 이상 중국과 일본의 저술에 필적할 만한데, 이들이 다른 물명은 사물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다. 대표적 저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희(柳僖)의 『물명고(物名考)』(5권 2책). 둘째, 정약용(丁若鏞)의 『물명괄(物名括)』(1책). 셋째, 고종 16년인 1890년에 간행된 류우일(柳雨日)의 『물명찬(物名纂)』. 넷째, 이가환(李嘉煥)·이재위(李載威)의 『물보(物譜)』(1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규장각에 “物名考”라는 제명의 작자 미상 저술 3종류가 더 있다.³⁾

‘물명고’류에 대한 연구는 다대(多大)한데,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2) 김형태, 『시명다식(詩名多識)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1)』, 『韓國詩歌研究』 第 21輯, 韓國詩歌學會, 2006, pp.251-252.

3) ‘물명고’류 유서의 편자 및 서명 등에 대해서는 洪允杓의 『十八, 十九世紀의 한글 註釋本 類書에 대하여 -특히 ‘物名考’類에 대하여』(『周時經學報』 1, 周時經學會, 1988.)를 참조할 만하다.

홍윤표, 장유승, 정승혜 등의 연구 성과에 주목할 만하다. 홍윤표⁴⁾는 물명에 대한 저술을 정리하고, 유희의 『물명고』를 중심으로 물명 관련 유서의 공통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장유승⁵⁾은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 동기를 당대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전하는 물명서의 분류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물명서의 성격을 재검토하였다. 정승혜⁶⁾는 ‘물명’에 대한 현전 유서의 종류와 현황을 정리하면서 물명 관련 유서의 특징과 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시명다식』과 유희의 『물명고』 등 우리나라의 ‘물명고’류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본초강목』과 일본의 『왜한삼재도회』 등과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조·중·일 유서류의 특성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II. 편목(篇目) 구성의 독자성 추구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본초강목』은 ‘수(水)’, ‘토(土)’, ‘금(金)’ 등 자연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 『왜한삼재도회』는 ‘지리(地理)’를 앞세우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산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물명고』는 ‘조(鳥)’, ‘수(獸)’, ‘초(草)’, ‘목(木)’의 순서를 따름으로써 그 기능을 생물 백과사전과 실용성에 맞추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시명다식』과 유

4) 홍윤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2013.

5) 장유승,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체계』,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6) 정승혜, 『물명(物名)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2014.

희의 『물명고』 및 『본초강목』과 『왜한삼재도회』의 수록 내용을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서명	분량	수록 내용 목록
『시명다식』 (1805)	4권 2책	1권 識草 78종, 識穀 20종 / 2권 識木 62종, 識菜 10종 3권 識鳥 44종, 識獸 63종 / 4권 識蟲 30종, 識魚 19종
『물명고』 (1824경)	5권 1책	1권 有情類 羽蟲 84종 ⁷⁾ / 獸族(毛蟲·羸蟲) 44종, 水族(鱗蟲·介蟲) 73종 / 昆蟲 43종 2권 無情類 草(上·下) 271종 3권 木 79종 4권 不動類 土 8종 / 石 34종 / 金 5종 5권 不靜類 火 12종 / 水 19종
『본초강목』 (1596)	52권 37책	1권 序, 凡例, 序例 上 / 2권 序例 下 / 3권 百病主治藥 上 / 4권 百病主治藥 下 / 5권 水部 / 6권 火部 / 7권 土部 / 8권 金石之一 / 9권 金石之二 / 10권 金石之三 / 11권 金石之四 / 12권 草之一 / 13권 草之二 / 14권 草之三 / 15권 草之四 / 16권 草之五 / 17권 草之六 / 18권 草之七 / 19권 草之八 / 20권 草之九 / 21권 草之十, 雜草 / 22권 穀之一 / 23권 穀之二 / 24권 穀之三 / 25권 穀之四 / 26권 菜之一 / 27권 菜之二 / 28권 菜之三 / 29권 果之一 / 30권 果之二 / 31권 果之三 / 32권 果之四 / 33권 果之五, 果之六 / 34권 木之一 / 35권 木之二 / 36권 木之三 / 37권 木之四, 木之五, 木之六 / 38권 服器部 / 39권 蟲之一 / 40권 蟲之二 / 41권 蟲之三 / 42권 蟲之四 / 43권 鱗之一, 鱗之二 / 44권 鱗之三, 鱗之四 / 45권 介之一 / 46권 介之二 / 47권 禽之一 / 48권 禽之二 / 49권 禽之三, 禽之四 / 50권 獸之一 / 51권 獸之二, 獸之三, 獸之四 / 52권 人部
『왜한삼재도회』 (1712)	105권 81책	1권 天部 / 2권 天文 / 3권 天象類 / 4권 時候類 / 5권 曆占類 / 6권 曆擇日神 / 7권 人倫類 / 8권 人倫親族 / 9권 官位部 / 10권 人倫之用 / 11권 經絡部 / 12권 支體部 / 13권 異國人物 / 14권 外夷人物 / 15권 藝器 / 16권 藝能 / 17권 嬉戲部 / 18권 樂器類 / 19권 神祭附佛供具 / 20권 兵器防備具 / 21권 兵器征伐具 / 22권 刑罰 / 23권 漁獵具 / 24권 百工具 / 25권 容飾具 / 26권 服玩具 / 27권 絹布類 / 28권 衣服類 / 29권 冠帽類 / 30권 履襪類 / 31권 庖廚具 / 32권 家飾類 / 33권 車駕類 / 34권 船橋類 / 35권 農具類 / 36권 女工具 / 37권 畜類 / 38권 獸類 / 39권 鼠類 / 40권 寓類·怪類 / 41권 水禽類 / 42권 原禽類 / 43권 林禽類 / 44권 山禽類 / 45권 龍蛇部 / 46권 介甲部 / 47권 介貝部 / 48권 魚類·河

	湖·有鱗魚 / 49권 魚類·江海·有鱗魚 / 50권 魚類·河湖·無鱗魚 / 51권 魚類·江海·無鱗魚 / 52권 卵生類 / 53권 化生類 / 54권 濕生類 / 55권 地部 / 56권 山類 / 57권 水類 / 58권 火類 / 59권 金類 / 60권 玉石類 / 61권 雜石類 / 62권 本 中華, 末 河南 / 63권 河西 / 64권 地理 大日本國 / 65권 地部 / 66권 上野 / 67권 武藏 / 68권 越後 / 69권 甲斐 / 70권 能登 / 71권 若狹 / 72권 山城 / 73권 大和 / 74권 攝津 / 75권 河內 / 76권 和泉 / 77권 丹波 / 78권 美作 / 79권 阿波 / 80권 豊前 / 81권 家宅類 / 82권 香木類 / 83권 喬木類 / 84권 灌木類 / 85권 寓木類 / 86권 五果類 / 87권 山果類 / 88권 夷果類 / 89권 味果類 / 90권 瓜果類 / 91권 水果類 / 92권 本 山草類 上卷, 末 山草類 下卷 / 93권 芳草類 / 94권 本 濕草類, 末 濕草類 / 95권 毒草類 / 96권 蔓草類 / 97권 水草·藻類·苔類 / 98권 石草類 / 99권 葷草類 / 100권 瓜菜類 / 101권 芝茸類 / 102권 柔滑菜 / 103권 穀類 / 104권 菽豆類 / 105권 造釀類
--	--

이상에서 도식화한 유서류 저술들은 약 백여 년을 티올로 동북아시아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종적(縱的)인 영향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18·19세기 동북아시아 백과전서류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비교 대상들이다.

이와 같은 도식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상의 조·중·일 유서류는 백과사전적인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용서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주로 동식물과 인간의 삶에 유용한 광물과 기물을 그 내용 목록으로 싣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가장 먼저 완성된 『본초강목』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하겠는데, 실제로 조선과 일본의 저술들은 『본초강목』에 인용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그 실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 저술들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그 차이점이 각 유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차이점은 첫째, 『본초강목』은 의술(醫術)

7) 도표에 제시한 유희의 『물명고』 수록 내용의 종류 수는 대항목이다. 한 항목 안에서 유사한 다른 물명에 대한 설명을 싣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물명의 항목 수는 이보다 많다. 필자 주.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저술인 만큼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초목의 서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수(水)·화(火) 등과 광물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마지막에 인간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삼재(三才)의 철학적 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왜한삼재도회』는 분량상으로 가장 방대한 유서인데, 식(食)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의(衣)나 주(住)와 관련된 부분까지 인식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자연과 아울러 인간의 구체적 삶까지 그 내용에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의 목록을 통해 지리(地理)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도서국(島嶼國)이라는 일본의 특성상 대륙에 대한 동경 내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보 및 정세 분석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시명다식』이나 『물명고』 등 조선의 유서류는 축약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다양한 서적을 참고하여 특정 텍스트나 항목에 국한시켜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의 유서류와 차별되는 고유성을 획득하고 있다. 특히 유희의 『물명고』에 정리된 중세 우리말 물명이 이러한 고유성을 잘 방증하고 있으며, 우리말에 대한 당대의 관심이나 애정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처럼 조·중·일의 유서류는 실용성이라는 공통점을 담보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대별되는 고유한 차이점들을 지님으로써 각각 그 개별성을 획득하고 있다.

항목별 내용에 있어서도 ‘물명고’류는 인용된 문헌과 순서에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송(南宋)대 주희(朱熹)의 『시전(詩傳)』 → 육기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 → 명(明)대 이시진의 『본초강목』 → 『이아(爾雅)』, 진(晉) 곽박(郭璞)의 『이아주(爾雅注)』 → 본인 의견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아울러 각 항목의 구분은 백권(白圈)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한(漢)대 양웅(揚雄)의 『방언(方言)』, 후한(後漢)대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

字』, 송(宋)대 라원(羅願)의 『이아익(爾雅翼)』과 엄찬(嚴粲)의 『시집(詩緝)』과 육전(陸佃)의 『비아(俚雅)』 등도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원문의 일부가 『본초강목』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유희 등 저자들은 주로 『본초강목』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Ⅲ. 표제어 관련 교화적 시각 반영

어렵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있다. ‘믿음’, ‘예(禮)’, ‘절의(節義)’, ‘지혜’ 등이 그러하다. 다음은 ‘기러기(鴈)’와 관련하여 유서류에 수록된 설명이다. 이는 한영(韓永, 1285~1348)의 『한시외전(韓詩外傳)』을 비롯하여 『본초강목』이나 『왜한삼재도회』와 ‘물명고’류 등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기러기’는 네 가지 덕을 지녔다. 추우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고, 더우면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니 그것은 ‘신’이다. 날 때에 차례가 있고, 앞에서 울면 뒤에서 응하니 그것은 ‘예’이다. 짝을 잃으면 거들 짝하지 않으니 그것은 ‘절’이다. 밤이면 무리는 자더라도 한 놈은 돌아다니며 경계하고, 낮이면 ‘로’(갈대)를 물고, 줄 맨 주살(오늬에 줄을 매어 쏘는 화살)을 피하니 그것은 ‘지’이다.⁸⁾

이처럼 조·중·일 유서류에 드러난 교훈성의 강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인 가축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8) “雁有四德. 寒則自北而南 熱則自南而北 其信也. 飛則有序 而前鳴後和 其禮也. 失偶不再配 其節也. 夜則羣宿 而一奴巡警 晝則嚼蘆 以避繒繳 其智也.” 『詩名多識』 二, 奎章閣本, p.8.

‘닭(鷄)’과 관련된 설명이다.

『한시외전』에 말하였다. ‘닭’은 다섯 가지 덕을 지녔다. 머리에 갓을 이고 있음은 ‘문’이다. 발에 머느리발톱을 달고 있음은 ‘무’이다. 적이 앞에 있으면 용감하게 싸움은 ‘용’이다. 먹이를 보면 서로 부름은 ‘인’이다. 밤을 지키되 때를 놓치지 않고 옴은 ‘신’이다.⁹⁾

이외에도 ‘물명고’류에서는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인 육운(陸雲)의 <한선부(寒蟬賦)>를 인용하여 ‘매미(蟪)’의 다섯 가지 덕을 설명하고 있다. 즉 “머리 위에 망건이 있음은 ‘문’이고, 공기를 머금고 이슬을 마심은 ‘창’이며, 곡식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렴’이고, 살되 보금자리를 두지 않음은 ‘검’이며, 늘 있되 절기에 응함은 ‘신’이라는 것”¹⁰⁾이다. 또한 허신의 설명을 인용하여 ‘여우(狐)’에 대하여 “요사스러운 짐승이고, 귀신이 타는 것이며, 세 가지 덕이 있으니, 그 색깔은 ‘중화’이고, 앞은 작고 뒤가 크며, 죽을 때에는 ‘수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우’는 백 년을 살고, 북두성에 절하면, 남자나 여자로 변하여 사람을 홀린다고 하였다¹¹⁾는 설명 등이 이와 같은 교훈성 강화의 예시에 해당한다.

이러한 생물을 활용한 교훈성의 전달은 비단 동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다음은 명(明)대 위교(魏校)가 찬(撰)한 유서인 『육서정온』을 활용한 ‘측백나무(柏)’에 대한 설명이다.

9) “韓詩外傳曰 鷄有五德. 首戴冠 文也. 足搏拒 武也. 敵在前敢鬪 勇也. 見食相呼 仁也. 守夜不失時 信也.” 『詩名多識』二, 奎章閣本, p.11.

10) “蟬有五德. 頭上有幘 文也. 含氣飲露 清也. 黍稷不享 廉也. 處不巢居 儉也. 應候有常 信也.” 『詩名多識』二, 奎章閣本, p.67.

11) “妖獸 鬼所乘也. 其色中和 小前大後 死則首丘. 或云 狐至百歲 禮北斗 變爲男婦 以惑人.” 『詩名多識』二, 奎章閣本, p.27.

많은 나무가 모두 햇빛을 향하지만, ‘측백나무’만 홀로 서녘을 향하니 대개 음목(산 북쪽의 나무 또는 산의 응달에 있는 나무)이지만, 곧은 덕이 있기 때문에 글자는 백(白)을 따른다. 백이라는 것은 서쪽이다.¹²⁾

이와 같이 생물을 활용하여 인간적 덕목을 강조하면서 교훈성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서류는 편목(篇目)의 구성에서 생물의 비중을 중시했으며, 생물이 앞부분에 자리한다는 점이 이를 반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본초강목』이나 『왜한삼재도회』와 구별되는 『시명다식』이나 『물명고』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인간적 덕목의 강조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공동체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까지 그 외연을 넓히는 인식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은 옛 이름이 ‘징경이’인 ‘물수리(雕鳩)’에 대한 설명이다.

암수가 서로 얻으면, 정이 지극하면서도 분별이 있어서, 어울리면 짝지어 날지만, 떨어지면 사는 곳이 다르다.¹³⁾

이상의 인용문에서는 공동체적 삶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지켜야 할 덕목 중 ‘부부유별(夫婦有別)’과 관련하여 ‘물수리’의 분별이 지극함을 통해 일정한 교훈성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생물의 흥미로운 습성을 활용하여 부부 사이의 화목과 협동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다.

12) “六書精蘊云 萬木皆向陽 而柏獨西指 蓋陰木 而有貞德者 故字從白. 白者 西方也.” 『詩名多識』一, 奎章閣本, p.72.

13) “雄雌相得 摯而有別 交則雙翔 別則異處.”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7.

‘소’나 ‘말’의 똥을 굴려 공 모양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수컷은 끌고 암컷은 밀어 구덩이 속에 두고, 며칠 동안 덮어두면, 작은 ‘강랑’이 나오는데, 대개 그 속에 품어서 깨는 것이지, 먹이로 삼는 것은 아니다. ‘말똥구리’이니, ‘길강’, ‘추환(말똥구리·소똥구리)’, ‘추차객(말똥구리·소똥구리)’, ‘흑우아(말똥구리)’, ‘철갑장군’, ‘룡환(말똥구리 또는 여러 개의 공을 공중에 던졌다가 받는 놀이)’, ‘천사’와 같다.¹⁴⁾

이상은 쇠똥구리과의 곤충인 ‘말똥구리(蜣螂)’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이 서술자의 관찰을 통한 생물의 습성을 활용하여 인간 공동체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자어에 해당하는 한글 물명을 제시하여 당대 통용되던 명확한 이름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이나 일본의 유서류와 대별되는 우리나라 ‘물명고’류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의 삶에 필요한 인간적 덕목 중 동물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다. 다음은 ‘사다새(鵜)’에 대한 설명이다.

턱 아래 늘어진 턱살 크기는 마치 몇 되는 담을 수 있는 주머니와 같다. 무리지어 날기를 좋아한다. 만약 작은 못 속에 물고기가 있다면, 무리가 함께 물을 퍼서 그 늘어진 턱살에 가득 채워서 버린다. 물을 다 없애서 물고기가 땅에 있으면 이에 함께 잡아먹기 때문에 ‘도하’(洶河)라 한다.¹⁵⁾

14) “轉牛馬屎成丸 雄曳雌推 置之坎中 覆之數日 有小蜣螂出 盖孚乳于中也 非以為食也. 물종굴이 蜣螂 推丸 推車客 黑牛兒 鐵甲將軍 弄丸 天社 全.”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66.

15) “額下胡大如數升囊. 好群飛. 若小澤中有魚 便群共杼水 滿其胡而棄之. 令水竭盡 魚在陸地 乃共食之 故曰洶河.” 『詩名多識』二, 奎章閣本, p.17.

이밖에도 ‘황새(鶴)’에 대한 설명에서는 “진흙으로 그 등지의 한쪽 곁에 못을 만들고, 물을 머금어 그곳을 채워서, 물고기를 잡아 못 속에 조금씩 두었다가 그 새끼에게 먹인다. 만약 그 새끼를 죽이면, 한 마을이 가뭄의 재앙에 이른다.”¹⁶⁾고 하여 자애(慈愛)의 덕목과 함께 인간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사슴(鹿)’에 대해서는 “성질은 음란하여 수컷 한 마리가 늘 암컷 몇 마리와 사귀니, ‘취우’라 한다. ‘귀’(거북)를 즐겨 먹고, 좋은 풀을 구별할 수 있다. 먹을 때는 서로 부르고, 다닐 때는 서로 무리 짓는다. 멈추어 설 때에는 둥글게 에둘러서 뿔이 밖을 향하게 하여 해로운 것을 막고, 누워 잘 때에는 입이 꿈무늬뿔을 향하여 독맥을 통하게 한다.”¹⁷⁾고 하여 절개와 협동 등의 인간적 미덕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동아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적 덕목과 관련하여 지식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명고’류에는 이러한 내용도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울음소리는 쇠북의 음물에 알맞고, 행동은 법도에 알맞다. 노닐 때는 반드시 장소를 가리고, 자세히 살핀 뒤에 머물러 산다. 살아 있는 풀을 밟지 않고, 살아 있는 벌레도 밟지 않는다. 무리지어 살지 않고, 짝지어 다니지도 않는다.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도 않는다. 임금이 지극히 어질면 나타난다.¹⁸⁾

16) “泥其巢一傍爲池 含水滿之 取魚置池中稍稍 以食其雛. 若殺其子 則一村致旱災.” 『詩名多識』二, 奎章閣本, pp.20-21.

17) “鹿性淫 一牡常交數牝 謂之聚麀. 喜食龜 能別良艸. 食則相呼 行則相旅. 居則環角外向以防害 臥則口朝尾間 以通督脈.” 『詩名多識』二, 奎章閣本, p.35.

18) “音中鐘呂 行中規矩. 游必擇地 詳而後處. 不履生艸 不踐生虫. 不群居 不侶行. 不入陷阱 不罹羅網. 王者至仁 則出.” 『詩名多識』二, 奎章閣本, pp.33-34.

이상은 예로부터 상상 속의 신성한 짐승으로 알려진 ‘기린(麒麟)’에 대한 설명이다. ‘살아 있는 풀’과 ‘살아 있는 벌레’로 대변되는 민중을 어쭙으로 대하는 ‘기린’의 비유를 통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적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검은 무늬 흰 범’인 ‘추우(騶虞)’에 대해서도 육기(陸機)의 말을 인용하여 “몸보다 꼬리가 길고, 살아있는 동물을 먹지 않으며, 살아 있는 풀도 밟지 않는다. 임금에게 덕이 있으면 나타나 덕에 응하니, 지극한 짐승이다.”¹⁹⁾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기린’의 예와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仁)’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유서 중 ‘물명고’류는 개인의 삶을 포괄함은 물론, 가족과 집안으로 대변되는 동아리의 소중함 인식시키기 위하여 생물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본적 단위로부터 인간성의 실천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유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아울러 ‘인(仁)’을 전제로 한 지도자의 덕목도 제시하여 인성의 중요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IV. 화소(話素)를 통한 대중성 획득 모색

우리나라 ‘물명고’류의 또 다른 특징은 설화적 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설화적 화소를 통한 설명은 『본초강목』과 『왜한삼재도회』 등의 일반적 특징이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지명이나 물명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 두드러지는 한편,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우리 유서류

19) “騶虞 尾長於軀 不食生物 不履生艸者. 帝王有德 則見應德 而至者也.”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28.

만의 그 특성이 더욱 확연하게 변별된다.

‘황새’와 비슷한데, 조금 작고 갈색이니, ‘왜가리’이다. ‘미팔(재두루미)’, ‘팔록’, ‘팔장’, ‘맥계’, ‘착락(재두루미)’과 같다. ○ <기창(奇鶻)>은 머리가 아홉 개인 불길한 새이다. 목이 열 개인데 머리는 아홉 개이니, 목 하나에는 머리가 없다. 늘 핏방울을 떨구는데, 밤에 날면서 울다가 불을 보면 땅에 떨어뜨리니, 핏방울이 사람 사는 집에 떨어지면, 그 주인에게 곡(哭)이 있게 된다.²⁰⁾

이상은 ‘재두루미’인 ‘창팔(鶻鵠)’에 대한 설명이다. ‘기창’은 ‘귀거조(鬼車鳥)’인데, 전설상의 붉은 요조(妖鳥)로서 오리처럼 생겼고, 머리가 아홉 개라서 ‘구두조(九頭鳥)’라고도 하는 새이다. 이 새와 관련하여 ‘핏방울을 떨군다’는 것은 고대에 혈육 관계를 판별하던 방법으로서 혈육 간이면, 산 사람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핏방울을 물속에 떨어뜨렸을 때 서로 엉기고, 검시(檢屍)의 경우에는 산 사람의 피를 죽은 사람의 뼈에 떨어뜨리면 스며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이 ‘물명고’류는 전설과 관련된 화소와 상사(喪事)에 지켜야 할 인간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보편적 대중성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물명고’류의 특징은 동양의학과 관련하여 대중성을 지향하는 점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초강목』 등의 의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의 유서류와 공통된 점이며, 영향 받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가마우지(鷓鴣)’에 대한 설명이다.

‘익(鷓)’과 비슷한데, 작고 검은색이며, 긴 부리는 조금 구부러졌으니, ‘가마

20) “似鷓 而稍小褐色 왜갈이. 鷓鴣 鵠鹿 鵠將 麥鷄 錯落 全. ○ 奇鶻 九頭逆鳥也. 十脰九首 一脰無首. 常滴血 夜飛作鳴 見火則墮地 血滴人家 主有哭.”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5.

우지'이다. '금(鷄)' 음은 의(意), '수로아', '수관', '의(鵠)' 어(於)와 계(計)의 반절(反切)과 같다. <촉수화(蜀水花)>는 가마우지의 똥이다.²¹⁾

'가마우지'의 다른 이름은 '오귀(烏鬼)'인데, 털빛이 검고 까마귀와 비슷하나 더 큰 새로서 잠수해 긴 부리로 물고기를 잘 잡으므로 어부들이 길러서 물고기 잡는 데 활용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한자음과 관련된 반절법(反切法)을 활용하였고, 특히 동아시아 의학에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하는 '촉수화'에 대한 언급을 곁들이고 있다. '촉수화'는 '가마우지'가 물가의 돌 위에 누는 똥인데, 자줏빛이고 꽃같이 생겼으며, 이것을 굵어서 돼지기름에 개어 바르면, 주근깨·김·사마귀·주사비(酒渣鼻·딸기코)와 얼굴에 생긴 흠집 및 탕화창흔(湯火瘡痕·불에 데서 생긴 흠집)을 없애고, 정창(疔瘡)을 낫게 한다. 또한 어린이의 감질(疳疾)과 거위가 있는 데 이것을 가루 내어 돼지 간에 묻혀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증험(證驗)도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동북아시아의 동양의학적 치험례(治驗例)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사의(蛇醫)는 풀이 무성한 늪지대 사이에 살고, 모양은 '언정'을 닮았는데 길다. '뱀'은 상처를 입으면, 풀을 머금었다가 그것을 펴서 바르며, 물에 들어 가서 물고기와 더불어 교미(交尾)하기도 한다.²²⁾

이상의 내용 중 '사의'는 '영원(螻蝻)' 즉 '도마뱀붙이'의 다른 이름인데, 한편으로는 '사사(蛇師)'로서 '뱀'에 물린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

21) “鷄鷄 似鷄 而小色黑 長喙微曲 가마오리. 鷄 音意 水老鴉 水鷄 鷄 於計切 全. 蜀水花 鷄鷄屎.”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7.

22) “蛇醫 生草澤間 形類蚯蚓而長. 蛇有傷 則啣草敷之 入水與魚合.”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51.

사를 일컫기도 한다. 아울러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그 유래와 관련하여 존재한다. 즉, ‘뱀’이 상처를 입으면, 풀을 머금었다가 그것을 퍼서 바른다는 대목과 연관된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옛날에 피부병 걸린 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리쟁이’ 옆에 가서 막 비비더니 피부병이 없어졌고, 따라서 인간도 이 풀이 피부병에 좋은 줄 알고 소리쟁이를 먹기 시작하였다는 민담(民譚)이 존재한다. 또한 산불이 나 상처를 입은 뱀이 소리쟁이에 몸을 비벼 치유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이때 ‘소리쟁이’는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습지에서 주로 자라고, 어린잎은 나물로 먹으며, 뿌리는 약재로 사용하는 풀이다. 강력한 항균·항염증 작용을 하여 예로부터 부스럼·종기·습진 등의 피부질환이나 황달·토혈·타박상 등에 널리 사용되었고, 또한 뱀이나 동물에 물렸을 때 소염제로 쓰기 때문에 ‘뱀풀’이라고도 부른다.

이처럼 공통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면서도 물명의 유래에 천착하기보다는 의학이나 의술과 관련하여 대중성을 지향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동북아시아 유서 중에서 우리나라 ‘물명고’류가 지닌 특성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유인원(類人猿)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설명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획(獼: 큰 원숭이)’은 바로 이른바 ‘가획(원숭이과의 짐승)’이니, ‘후(猴)’와 비슷하지만 매우 크고, 사람들의 아내를 잘 훔쳐 빼앗는데, 자식을 낳으면 성(姓)을 ‘량(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족중에는 ‘량’ 성이 많다. ○ <성성(猩猩)>은 ‘후(猴)’와 ‘돼지’ 비슷한데, 사람의 얼굴과 발이며, 사람의 언어를 쓸 줄 안다. ○ <산도(山都)>는 모습이 곤륜노와 같은데, 온몸에 털이 나 있고, 사람을 만나면 눈을 감고 입을 벌린다. 깊은 산골짜기 시냇가에 머물러 살면서 돌을 뒤집어 ‘해(蟹: 게)’를 찾아 구해 먹는다.²³⁾

23) “○ 獼 卽所謂 猴 似猴而極大 善盜人妻 生子 姓曰 梁. 故蜀中多梁姓. ○ 猩 ”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 중 ‘성성’은 유인원과에 속하며, 사람 모습을 한 지능이 높은 짐승인 ‘성성이’로서 흔히 ‘오랑우탄’을 가리킨다. 또한 ‘산도’는 ‘비비(狒狒)’의 일종으로 긴 주둥이를 지니고 있는 짐승이며, ‘곤륜노’는 한(漢)대 이후 남양(南洋)에서 건너온 흑인을 중국에서 이르는 말이다. 즉, 말레이 지역 출신의 피부 빛이 검은 노비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당(唐)대에 권문세가에서 노비로 생활하였던 계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물명고’류의 내용에는 설화적 화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당시 주변 국가와의 인적 교류 및 교역과 연관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대중성은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두견(杜鵑)’에 대한 설명이다.

‘백조’인데, 하지부터 울어서 동지에 그치기 때문에 ‘사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 <계(鳩: 자규·두견)>는 ‘제계’인데, 봄과 가을이면 울기 때문에 ‘온갖 풀들이 향기를 잃는다.’고 하였다.²⁴⁾

이상의 내용 중 ‘사지’는 하지와 동지를 구별하는 일을 맡았던 고대 관원의 명칭이고, ‘온갖 풀들이 향기를 잃는다’는 것은 『초사(楚辭)』 중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겁이 나네 두견이 먼저 울어 대어, 온갖 풀들 그 때문에 향기 잃게 될까 봐.(恐鵲鳩之先鳴兮 使夫百草爲之不芳.)”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여기에서 ‘두견’은 간신, ‘온갖 풀들’은 충신을 의미하며, 이를 따라 해명하기도 전에 참조가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충직한

似猴似猪 人面人足 作人言語. ○ 山都 形如崑崙奴 通身生毛 見人閉目張口. 在深澗中 鬪石覓蟹噉之.”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32-33.

24) “鵲 伯趙 夏至鳴 冬至止 故名曰 司至. ○ 鳩 鸚鵡 春秋則鳴 故百草不芳.”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10.

인사가 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명결(鳴鳩)’이라는 어휘가 유래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어휘의 유래 및 배경 설명은 중국이나 일본의 유서류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명고’류는 설화적 화소를 보다 적극 활용하여 풍부한 대중성 획득이라는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한자어의 유래와 관련하여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바라던 일이 어그러진 상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낭패’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도 흥미롭다.

‘패(狽)’는 앞다리가 짧고, ‘랑(狼)’은 뒷다리가 짧으며, ‘패’가 음식이 있는 곳을 알아서 ‘랑’이 ‘패’를 등에 업고 돌아다니는데, 혹시 서로 잃어버린다면, 실패함이 더 이상 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것과 ‘궤토’의 일은 서로 비슷할 따름이다. ○ <궤토(鵓兔)>는 다른 이름으로 ‘궤서’인데, 거란의 땅에 산다. 앞발은 1치[寸] 남짓이고, 뒷발은 3재[尺]라서 원래 뛰게 되면 넘어질 듯하거나 땅에 엎어진다. 그러므로 늘 ‘공공거허’를 위해 ‘감초’를 물어뜯어 주고, 만약 사람들을 만나면, ‘공공거허’가 반드시 등에 업고 달아난다. <공공(蝥蝥)>은 ‘말’과 비슷하다. <거허(駞驢)>는 ‘당나귀’와 비슷하고, ‘공공’과 아울러 북쪽 지방에서 나온다.²⁵⁾

‘랑’과 ‘패’는 모두 전설상의 짐승인데, ‘랑’은 뒷다리가 매우 짧고, ‘패’는 앞다리가 매우 짧아서 다닐 때는 항상 ‘패’가 ‘랑’의 등에 업혀서 ‘랑’의 앞다리와 ‘패’의 뒷다리인 네발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떨어져서는

25) “狼狽 狼足前短 狼足後短 狼知食所在 狼負之而行 若或相失 則敗莫甚焉。此與鵓兔之事相類耳。○鵓兔 一名鵓鼠 生契丹地。前足寸餘 後足三尺 既跳則蹶然仆地。故常爲蝥 〃駞驢 齧甘草 若見人 則蝥 〃駞驢 必負以走。蝥 〃 似馬。駞驢 似驢 並出北方。”『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30-31.

움직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에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적 화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유서류의 특징이며, 이 또한 대중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명고’류는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달리, 물명과 설화적 화소의 만남을 통한 흥미로운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일정한 지식의 전수는 물론 대중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동양의 학 등 항목별 주제어와 관련된 유용한 내용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그 유래는 물론 어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 실용성을 배가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또 다른 예시를 들 수 있다. 즉, 망설이며 결정짓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유예’에 대해서는 “유(猶: 유호(猶猢)·원숭이의 일종)는 ‘확(獮)’의 일종인데, ‘고라니’와 같고, 나무에 잘 오르며, 그 천성(天性)됨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유예’라 말한다.”²⁶⁾고 하였는데, 이 역시 ‘낭패’와 그 가치의 궤를 함께 한다.

V. 필자의 종합적 견해 표명

조선의 ‘물명고’류 및 『본초강목』과 『왜한삼재도회』등 동북아시아 유서류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기존의 견해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유서류는 특히 그 서술자의 견해 표명이 매우 확실하다. 다음은 이종교배에 의해 탄생한 생물에 대한 설명

26) “猶 獮屬 如麋 善登木 其爲性多疑 故凡事之不決曰 猶豫.”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33.

이다.

거허(駞驢)는 ‘검은 소’가 아비이고, ‘말’인 어미가 낳은 것이니, ‘튀기’이다. 그러나 ‘공공거허’의 주(註)에는 또 이것이 야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²⁷⁾

이상의 인용문 중 ‘거허’는 ‘벼새’이다. 즉 ‘노새’ 비슷하게 생겼으며, 타고 다닐 수 있는 짐승을 일컫는다. ‘공공거허’는 전설상의 짐승 이름인데, ‘거공(駞蠶)’ 또는 ‘거허(駞驢)’와 ‘공공(蠶蠶)’으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하는 짐승이다. ‘공공’은 빛깔이 희고, 말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북해(北海)에 산다는 전설상의 짐승이다. 이들은 서로 비슷하고, 늘 함께 따라다니며, 공생(共生)한다는 짐승이기 때문에 인신하여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특이’라는 중세국어를 표기함으로써 당시 통용되던 우리말의 묘미를 십분 살리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특이’ 또는 ‘트기’라고도 하는데, 종(種)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를 가리키는 말로써 ‘책맥(駞驢)’이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수탕나귀’와 ‘암소’ 사이에서 나는 동물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 이들 짐승에 대한 정확한 구별은 어렵다. 따라서 서술자 역시 ‘무엇을 따라야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면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견해를 종합하되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 가감 없이 진솔하게 그 견해 표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유서류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견해 표명은 생물의 생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이를 인간의

27) “駞驢 驢牛父馬母所生 특이. 然蠶 駞驢之註 又是野地自產者 未知何從.”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23.

삶과 결부시키고자 했던 필자의 태도와 깊은 연관을 맺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수달(水獺)’과 연관된 아래의 설명이다.

수달(水獺)은 강과 호수에 있는데, 다리가 짧고, 몸은 좁으면서 납작하며, 색깔은 자백과 같다.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내니, ‘슈달피’이고, ‘수구(수달·물개)’와 같다.²⁸⁾

이상의 내용 가운데 ‘자백’은 전국시대 제(齊)나라에서 나던 자줏빛 비단이다. 이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것이었으며, 본래 낡은 흰 비단을 염색해 만들었다. 관찰과 연관하여 주목할 부분은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다’는 표현이다. 이는 수달이 물고기 등의 사냥감을 잡아다가 물가나 바위 위에 차례로 늘어놓는 습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수달이 먹이를 잡으면 제사를 지내는 동물로 알려져 왔다. 특히, 24절기(二十四節氣) 중 입춘(立春) 후 15일 정도 지난 양력 2월 19일경이 우수(雨水)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때가 되면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유래한 표현이 ‘달제(獺祭)’ 또는 ‘달제어(獺祭魚)’이다. 이는 수달이 잡은 물고기를 늘어놓아 제사지내는 것처럼 한다는 뜻으로, 인신하여 글을 쓰는 사람이 시문(詩文)을 지을 때에 많은 참고서적과 자료들을 열람하느라고 좌우에 어수선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비유한다.

이외에도 동북아시아의 유명 문인(文人) 관련 시구 인용 등을 통해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장하는 태도 역시 서술자의 견해 표명과 관련된

28) “水獺 江湖有 足短身扁 色若紫帛. 捕魚設祭 슈달피 水狗 全. ○獺獺 形大 而頸如馬 身似蝙蝠.”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33.

특성과 그 궤를 함께 한다.

‘토육(土肉)’은 바다 속에 살고 검은색이며, 길이는 네댓 치[寸]이고, 배는 있지만 입이 없을 뿐이며, 작은 부스럼 같은 것이 몸통에 두루 퍼져있어서 마치 ‘고과’와 같으니, ‘뽕’이고, ‘해삼’, ‘해남자(해삼)’, ‘흑충(해삼)’과 같다. ‘니(泥)’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어 전하는 별레 이름인 듯 보이니, 술을 마시면 취하기 때문에 이백의 시(詩)에 ‘취사니’라고 이른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세속에서는 마침내 ‘해삼’에 해당되지만, 의거할 바는 없다.²⁹⁾

‘토육’은 조개류의 연체동물 또는 진흙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해삼’을 의미한다. ‘고과’는 쓴 맛을 지닌 ‘여주’나 쓴 ‘오이’를 가리킨다. 또한 ‘뽕’은 극피동물에 속하는 ‘해삼’을 가리킨다. 아울러 ‘니’는 남해(南海)에 산다는 전설상의 뼈 없는 벌레인데, 물속에 있을 때에는 활발히 움직이지만, 물이 없으면 진흙처럼 흐물흐물해진다고 하여 사람이 술에 몹시 취한 상태의 비유로 쓰기도 한다. 이와 연관하여 이백과 관련이 있는 ‘취사니’ 고사를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즉, ‘취사니’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몹시 취한 모양을 가리키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백의 시 <양양가(襄陽歌)> 중 6행의 일부 구절이다. “… 傍人借問笑何事(옆 사람이 무슨 일로 웃느냐고 물어보니) / 笑殺山公醉似泥(산간(山簡)이 곤죽으로 취함을 비웃는다네.) / 鷓鴣杓 鸚鵡杯(가마우지 모양의 구기! 앵무새 모양의 술잔!) / 百年三萬六千日(백년의 삼만 육천 일 동안) / 一日須傾三百杯(하루에 모름지기 삼백 잔을 기울여야 하리라.) …”

이외에도 기물(器物)과 관련하여 ‘초왕(楚王)’에 대하여 “속담에 이르기

29) “土肉 生海中色黑 長四五寸 有腹無口耳 遍身癩 如苦瓜 뽕 海蔘 海男子 黑蟲 全. 泥 古來相傳似蟲名 得酒則醉 故李白詩有云 醉似泥 東俗遂以海蔘當之 無据.”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48.

를 초(楚)나라 왕이 (물에 빠져 죽은) 굴원에게까지 다다른 그물이기 때문에 ‘조왕이’라고 한다.”³⁰⁾라고 하여 당대 사용하던 기물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조왕이’는 ‘조앙이’라고도 하는데, ‘쟁이’의 옛말이고, 이는 ‘쟁이그물’을 가리킨다. 이것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하나로서 원뿔 모양으로 위에 몇 발의 버리가 있고, 아래에는 쇠나 납으로 된 추가 달려 있어서 버리를 잡고 물에 던지면, 고깔 모양으로 넓게 작 퍼지면서 가라앉는 그물이다. 그물이 바닥에 닿은 후 천천히 버리를 당겨서 그물 속에 든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

이와 같이 유명한 고전 작가 및 작품과 연관시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서술자의 견해를 명확하게 피력하는 데 일조하고,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의거할 바가 없다고 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자세야 말로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물명고’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간략하나마 『시명다식』과 유희의 『물명고』 등 우리나라의 ‘물명고’류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본초강목』과 일본의 『왜한삼재도회』 등과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조·중·일 유서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해 보았다.

2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유서류가 『본초강목』에 영향을 받아 실용성을 공통점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본초강목』은 의술(醫術)에 기반한

30) “楚王 諺謂 楚王以極屈原之網 조왕이.” 『物名考』,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37.

저술이므로 주로 초목의 서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왜한삼재도회』는 분량상 가장 방대한 유서인 만큼 자연과 아울러 지리 등 인간의 삶까지 그 내용에 포괄하고 있으며, 『시명다식』이나 유희의 『물명고』 등 조선의 유서류는 다양한 서적을 참고하여 특정 텍스트나 항목에 국한시켜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정리한 축약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3장에서는 표제어와 관련하여 교화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조·중·일 유서류에 드러난 공통점인데, 특히 조선의 유서류는 개인의 삶은 물론, 확장된 동아리 단위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생물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본적 단위로부터 인간성의 실천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교훈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물명의 유래를 심도 있게 설명하는 점이 동북아시아 유서류의 공통점이지만, 조선의 유서류는 설화적 화소를 결부시켜 일정한 지식의 전수는 물론 대중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았다. 또한 동양의학 등 항목별 주제어와 관련된 유용한 내용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그 유래는 물론 어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자연스럽게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그 실용성을 배가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유명한 고사(故事) 등과 연관시켜 표제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함으로써 서술자의 견해를 명확하게 피력하는 데 일조함은 동북아시아 유서류의 공통점이지만, 모르는 바에 대해서는 의거할 바가 없다고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점이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물명고’류의 특성이라고 파악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物名考』.
 東京大學校 小倉文庫本 『詩名多識』.
 서울대학교 奎章閣本 『詩名多識』.
 松亭 金赫濟 校閱, 『論語集註』, 1997.
 李成茂·崔珍玉·金喜福 編,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雜科榜目の 電算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張同君 編, 第2版 校点本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中華漢語工具書庫編輯委員會, 『中華漢語工具書庫』一冊-七十三冊, 安徽教育出版社, 2002.
 中國詩經學會, 『詩經要籍集成』一冊-四十二冊, 北京: 學苑出版社, 2002.

2. 논문 및 단행본

- 김형태, 『시명다식(詩名多識)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1)』, 『韓國詩歌研究』 第21輯, 韓國詩歌學會, 2006.
 金興圭 著,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서정 지음, 매지고전강독회 옮김, 『毛詩名物圖說』, 소명출판, 2012.
 이혜순 외 편,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장유승,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체계』,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정승혜, 『물명(物名)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2014.
 ———, 『물명(物名)류의 특징과 자료적 가치』, 『국어사연구』 22, 국어사학회, 2016.
 정학유 지음, 허경진·김형태 옮김, 『詩名多識』, 한길사, 2007.
 주대박(周大璞) 지음, 정명수·장동우 옮김, 『훈고학의 이해』, 동과서, 1997.
 千惠鳳, 『韓國 書誌學』, 민음사, 1991.
 崔桓, 『한국 類書의 종합적 연구(I) -중국 유서의 전입 및 유행』, 『中國語文學』 第41輯, 영남중국어문학회, 2003.
 洪允杓, 『十八, 十九世紀의 한글 註釋本 類書에 대하여 -특히 '物名考'類에 대하여』, 『周時經學報』 1, 周時經學會, 1988.
 홍윤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2013.

Abstract

A study on comparison to characteristic
of Northeast Asia's encyclopedia

Kim, Hyung-tae

Accordingly this paper is comes under a preface to consecutive papers. So the range of this paper limit value through consideration to philological characteristic and contents of 『Simyungdasik』 and ‘Mulmyungo’.

『Simyungdasik』 and ‘Mulmyungo’s system of investigation is original rather than admonish to a living thing in 『Si-kyung』 for Chinese and Japanese books. Specially the book subdivided an item of a plant that 『grass』, 『cereals』, 『tree』, 『herbs』. It is well brought out originality rather than admonish books in 『Si-kyung』 for Northeast Asia book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east Asian encyclopedia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First, Identity configuration of contents. Second, Human virtues to lessons emphasize province. Third, Tales elements and popularity. Fourth, Expressed opinions of the author.

We will confirm to 『Simyungdasik』 and ‘Mulmyungo’s practicality that he had very many acknowledged to 『Bonchogangmok(本草綱目)』 among the various reference books. Because of 『Bonchogangmok』 is famous practical book. And this fact in company with that Jung, hak-you will embody practicality to <Nonggaworllyongga>.

『Simyungdasik』 and ‘Mulmyungo is writings that characteristic to books of the same kind for 『Si-kyung』. So 『Simyungdasik』 and ‘Mulmyungo will many help to understand clear meaning of context. Because of Korean literature had many acknowledged to passages of 『Si-kyung』. And 『Simyungdasik』 and ‘Mulmyungo is very precious material that we will get to encyclopedic knowledge in connection with name, shape, a habit of a living thing. Also 『Simyungdasik』 and ‘Mulmyungo’ is writings for original system

that it wasn't turned over rather than similar writings for rationality and practicality to Chinese and Japanese books.

Key Word : Encyclopedia, Northeast Asia, Simyungdasik, Mulmyungo, Identity configuration of contents, Human virtues, Tales elements and popularity, Opinions of the author

김형태

소속 :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kimht@kyungnam.ac.kr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

